

불자 세상보기

和靜의 꽃 한 송이를 들어 봅시다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민주노총이 주도한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대회가 강경진압과 폭력시위로 얼룩지면서 12월 5일로 예정되었던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었다. 그러나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제안한 '평화지대-평화의 꽃길' 이 이날의 시위를 평화시위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화쟁위원회가 제안한 평화의 꽃길에는 불교, 개신교, 성공회,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단의 대표와 신도들을 포함하여 약 5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다.

세삼스럽지만 '화쟁'이란 말을 다시 떠올려 본다. 화쟁을 둘러싼 갑론을박의 철학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순

진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안을 둘러싼 해법을 찾는 데는 원호 스님이 발안한 '화쟁' 개념의 상식적인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복잡한 이론논쟁을 잠시 유보한다면 '화쟁'은 서로의 입장을 잘 헤아려 보살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화쟁' 이야말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이를 앞세운 배제와 다툼, 분열과 갈등의 논리"를 지양시킬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만든다. 5개 종단의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 존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사회에는 다시 평화와 찾아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12월 5일에 보여준 종교인들의 평화 메시지는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울림은 자못 컸다. 평화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들고 나온 꽃 한 송이가 경찰의 강경진압은 물론이거니와 시위대의 폭력행위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화쟁위원회의 도법 스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불길기 삶의 현장에서 불타오르고 있

는" 것을 질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불길기 꺼질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평화를 위한 원을 함께 세울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지인 스님도 문학적인 비유를 들어 "오해와 갈등의 두꺼운 외투는 물대포나 차벽이 아닌 소통과 경청이라는 햇볕이 벗길 수 있는 것"이라며 평화시위에 대한 종교인들의 호소가 "상호 경청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오늘날의 종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교가 싸움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사이버에 불과하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종교는 당연히 종교답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불교의 화쟁담론은 낡고 진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분노와 투쟁의 시대에는 화쟁정신에 입각한 상호이해의 사회적 여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불법시위와 폭력진압의 악순환을 끊는 데에도 화쟁의 몸짓과 발짓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또 반복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화쟁이란 말이 얼마나 평화-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는 화쟁위원회가 합법적 시위보장과 평화시위를 동시에 요청한 지난 12월 5일의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별 탈 없이 평화적으로 회향된 사례에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개인의 의사표현수단인 시위가 헌법상의 권리인 것만큼이나 일반시민의 일상적 삶을 방해하는 폭력시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갈등 해결방식은 언제나 폭력을 수반하는 양상을 되풀이해왔다. 이제야말로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적 답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화쟁의 언어이다. 부처님은 일찍부터 독(毒)은 독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시다.

어쩌면 화쟁의 연원은 부처님의 그와 같은 상황인식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까? 문득 '화쟁'이란 꽃 한 송이를 높이 쳐들고 각각각색의 갈등현장을 모두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社說

일촉즉발 위기 막은 불교계 지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가진 출두 방식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면서 일련의 사태들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숨 가빠던 25일 동안 가장 빛났던 것은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의 대화와 중재 노력이었다. 일단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온 사회적 약자를 여러 어려움, 불편을 인내하면서 최대한 보호하려했던 것은 종교가 갖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월 16일 이후 조계종은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이어갔다. 12월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경찰을 오가며 중재를 했고,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성사시켰다. 12월 10일에도 한 위원장의 자진 출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조계사의 종무원들이 인간띠를 형성해 보호했다.

한 때는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던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서며

감사의 인사를 표한 것도 불교계의 노력에 동감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종단 안팎으로는 긍정적 평가 여론이 높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종단이 사회 문제를 개인할 시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자와 약자가 분명한 노사 갈등과 서로의 이익이 부딪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화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막연하고 직흥적인 중재로서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다.

2000년대 이후 '현대판 소도'가 된 조계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불평등 논쟁이 있더라도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화쟁의 지혜'가 빛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과 과제를 잘 보강해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

가짜 기부금영수증 이제는 안된다

매년 1월이 되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에게 단골 화두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가 더 각박해진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가짜 기부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아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사심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이제는 안통하는 세상이 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63곳의 명단을 지난 12월 3일 공개했다. 소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이다. 이중 종교단체가 95%(6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1곳, 문화단체 1곳, 기타 1곳이다. 이중 불교와 관련되어 보이는 사찰들이 50여개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남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는 주로 수수료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남발과 다른 종교단체 고유번호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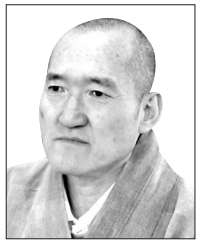
한 예로 경상북도 김천의 A사찰은 137건의 거짓 영수증으로 총 5억 8백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발행하다 적발됐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다. 불법(佛法)을 흉포해야 할 불자가 불법(不法)적인 일을 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사찰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순간적인 샛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라는 것이 핵심 가르침이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때이다.

발언대

한상균 피신 24일 평가와 과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지 24일 만에 자진출두하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말도 탈도 많았던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과 관련 성명서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사회문제 전문성이 필요하다"



범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 출두 형식으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갔다.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종단으로써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첫째, 법원으로부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확산 범 죄, 정치적으로 억울하다는 피의자에 대해 조계사 등 도량을 사실상 도피처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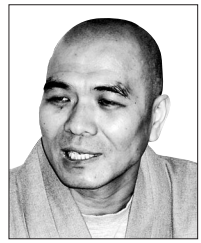
두 번째는 종단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시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사례에서 시위의 폭력성 논란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본질인 '노동계약'이라 칭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민중총궐기대회' 축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11개 분야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은 결과적으로 중요시 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종단이 사회적 문제에 개

입할 시 전문성이다. 과연 화쟁위원회가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종단을 대표해서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실력 있는 연구소기능으로 하여금 부처님가르침에 입각하여서 전문성과 시사적 식견으로 독자적인 대안을 생산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 향후 종단은 중요한 사회문제에 개입 시 종단기능에 전문가를 더하여서 종단의 목표와 진행방향을 결정한 후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12월 9일 15시 30분 경부터 경찰이 관음전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조계사 관리주체에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관음전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사전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경찰관이 그 대상이 누구든 법 집행을 하면서 절차와 예의를 무시하거나 대충해서 안 된다. 종단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도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자진 퇴거 결정을 통해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들이 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소통과 대화'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위해 조계사 관음전 일대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이를 막는 스님들과 종무원들에게 무력을 행사한 정부와 경찰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또한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의를 오롯이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다.

현재 우리 국가의 운영기조가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혹시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입장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현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통해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닌 노동법 개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사회적 협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자, 농민들의 절규를 정부는 결코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본 회의 조계사에 경찰 병력이 투입된 이번 사태를 맞아 불교의 자주권과 교단수호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 로 기댈 수 있는 종교로서 불교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宗正 洪山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총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